

1차 의료기관의 암 조기 검진 제공 실태조사

박지영, 조흥준, 선우성, 송윤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교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삼성병원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조기 발견시 치료가 가능한 암(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및 대장암)에 대한 가정의학과 및 내과 개원의들의 조기검진 시행률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들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2000년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요양기관 파일에 등록된 전국의 내과의사 2,397명 및 가정의학과 의사 1,377명중 내과개원의 569명 및 가정의학과개원의 330명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모두 335명으로 남성 286명, 여성 49명이었으며 내과의사 207명과 가정의학과 의사 128명이 포함되었다. 의사들의 인구학적 특성중 특정한 암의 조기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결과: 대부분의 의사들이 자궁경부암 검진(73.4%) 및 유방암 검진(64.6%)을 중요시 여겼으나 실제로 자궁경부암 검진(18.1%), 유방 진찰(15.7%), 유방 촬영(10.1%), 및 대변 잠혈검사(22.2%)의 시행여부는 미미하였다. 그러나 위암 검진은 55.3%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암 검진들보다는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사들의 인구학적 특성들 중 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의사의 성, 연령, 전문과목, 및 근무지역이었다. 자궁경부암 및 유방 촬영은 여의사들이 남자의사들에 비해 각각 2.8배(95%CI 1.18~6.85), 3.3배(95%CI 1.07~9.93)로 더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암 검진에서는 남자의사들의 59.3%(P value=0.0004)가 여의사의 31.1%에 비해 더 많이 검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궁경부암 및 유방 촬영은 60대 이상에서 각각 4.5배(95% CI 1.00~20.46), 12.4배(95% CI 1.75~87.30)로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검진은 나이가 젊을수록 더 많이 시행하는 경향을 보였다(p trend=0.04). 의사의 전문 과목별로 비교해 볼 때는 위암 검진을 제외한 자궁경부암 검진(OR 6.8, 95% CI 2.82~16.42), 유방진찰(OR 4.3 95% CI 1.85~10.11) 및 유방촬영(OR 4.4 95% CI 1.36~14.15)은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더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사의 근무 지역에 영향을 받는 검사는 위암검진이었으며 대 도시로 갈수록 위암 검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Mantel-Haenszel chi square analysis P trend<0.0001). 조기 암 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들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직장수지검사(28%), 및 위암 검진(16.3%)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잘 할 줄 몰라서'가 자궁경부암(23.2%), 유방 촬영(16.7%), 및 유방 진찰(14.8%)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변 잠혈검사의 낮은 시행여부는 '경제적 대가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16.7%로 가장 많았다.

결론: 대부분의 일차의료의사들이 암 조기 검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 시행여부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내시경을 제외한 나머지 조기 암 검진에 있어서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내과의사들에 비해 더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심단어 : 암 검진